

스웨덴 영화 '더 스퀘어' 칸 황금종려상

수준·완성도 등 높이 평가

경쟁부문 화제작 없어 맞fit

봉준호·홍상수 감독 수상 실패

'옥자' 등 넷플릭스 논란 '시골'

영화 '더 스퀘어'의 스웨덴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이 제70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홍상수 감독의 '그 후'는 수상에 실패했다.

올해로 70회를 맞은 칸국제영화제가 28일(현지시간) 1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영화제 도중 날아든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폭탄 테러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는 예전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다. 경쟁부문에 초청된 19편 가운데 평론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작품도 없어 다소 밋밋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나마 칸을 달군 것은 넷플릭스 논란이었다. 온라인 배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영화제 내내 이어지며 칸을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한국영화 수상 실패 ... 평단의 고른 지지는 성과= 올해 칸영화제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홍상수 감독의 '그 후'는 수상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두 작품 모두 간에서 공개된 이후 비교적 호평을 받았기에 수상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 그러나 넷플릭스 논란과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 진출했다는 점 등은 봉 감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옥자'는 제작비 5000만달러(약 600억원)가 투입된 영화로, 저예산 예술 영화들을 주로 상영하는 칸 경쟁부문에서는 이례적인 작품이었다. 그런데도 칸영화제 '옥자'를 초청한 것은 그만큼 봉 감독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작 '그 후'로 네 번째 경쟁부문에 진출한 홍 감독 역시 평단의 고른 지지를 얻었으며 작품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외에 미드나이트 스크린에서 상영된 '불한당'(번성현 감독)과 '악녀'(정병길 감독)가 칸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였다.

◇예상 벗어나지 않은 수상작= 올해 칸영화제에는 총 19편의 경쟁작이 선보였지만, 뚜렷한 두각을 나타낸 작품은 많지 않았다.

영화제 소식자인 스크린데일리의 평점을 보면 4



영화 '더 스퀘어'로 제70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

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넘지 않은 작품은 '러브리스'(3.2점)와 '유 어 네버 리얼리 히어'(3.1점) 두 작품뿐이었다. 지난해 5편이 3점 이상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레도 수상작들을 보면 비교적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 수상 목록에 들었다.

스웨덴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더 스퀘어'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작품의 화제성에 비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영화적 수준이나 완성도 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로맹 캥피외 감독의 '120 비츠 퍼 미닛'도 수상작으로 점쳐졌던 영화다. 인권 에이즈

운동 단체 액트 업(ACT UP)의 이야기를 다룬 '하드코어 휴먼 드라마'로, 강렬한 드라마가 평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여성감독 3명이 진출해 2명(소피아 코폴라 감독, 린 램지)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1993년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 감독이 여성감독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지 24년 만에 여성감독 황금종려상 2호가 나오지 관심이 쏠렸으나,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칸영화제 달군 '넷플릭스 논란'= 올해 칸영화제를 달군 것은 작품보다도 넷플릭스 논란이었다. 온라인으로 배급하는 넷플릭스 영화 '옥자'와 '더 메에로워치 스토리스'(미국 노아 바움백 감독)가 칸영화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부문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극장협회의 반발이 거세면서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극장 개봉 영화만 경쟁 부문에 초청하겠다고 방침까지 바꿔야 했다.

그러나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인 스페인의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영화제 개막일인 지난 17일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에 황금종려상이 돌아가면 거대한 모순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영화제가 발칵 뒤집혔다. 알모도바르는 며칠 뒤 미국의 영화전문지 인디와이어와 인터뷰에서 통역이 잘못돼 빚어진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튀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옥자' 언론 상영회에서는 스크린에 넷플릭스 자막이 뜰 때 야유가,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뜰 때는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넷플릭스 논란은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와 칸영화제 모두에 '얼얼'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칸영화제도 손해 본 것은 없다.

연합뉴스

■ 제70회 칸영화제 수상작·수상자 명단

황금종려상	'더 스퀘어'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스웨덴)
심사위원대상	'120 비츠 퍼미닛'	로맹 캥피외 감독(프랑스)
감독상	'매혹당한 사람들'	소피아 코폴라 감독(미국)
심사위원상	'러브리스'	안드레이 즈바킨체프 감독(러시아)
황금카메라상	'준느 맘'	레오노르 세라이에(프랑스)
각본상	'더 킬링 오브 에시크리드 디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그리스)
	'유 어 네버 리얼리 히어'	린 램지 감독(영국)
남우주연상	'유 어 네버 리얼리 히어'	호아킨 피닉스(미국)
여우주연상	'인 더 페이드'	다이앤 크루거(독일)
70주년 특별상	니콜 키드먼(미국)	



연산군과 중종이 연적?

팩션사극 '7일의 왕비' 내일 첫 방영

역사에 로맨틱한 상상력을 발휘한 팩션사극이 찾아온다. 드라마는 연산군과 중종이 한 여인을 두고 연적 관계였다고 상상한다. 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단 7일간의 중종의 왕비였다가 폐위된 단경왕후다.

KBS 2TV가 31일부터 수목극으로 방송하는 '7일의 왕비'는 단경왕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로맨스 팩션 사극이다.

제작진은 29일 "폭군의 역사에 짓눌린 사람 이야기를 폐비의 입장에서 그린다"며 "역사에 단 몇 줄 기록으로 남은 단경왕후 폐비 신씨의 눈으로 강력한 역사에 묻힌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박민영이 주인공 재경을 연기한다.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의 딸이자, 훗날 중종의 비가 되는 인물이다.

제작진은 재경에 대해 "최고 권세가의 딸로 태어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가장 정치적인 사랑을 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라고 설명한다.

드라마는 재경을 여느 로맨스 드라마의 딱딱하고 밋밋한 여주인공처럼 묘사한다. 공부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친아들 이복을 계승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분과 욕망을 표출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왕좌를 둘러싼 형제의 권력 대립에 기록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사골서 지내던 재경은 한양에 올라왔다가 임금과 그의 하랑방탕한 동생을 만나고,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연우진이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자,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 이복을 맡았다.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왕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뒤따라 하고 싶었던 열혈대군이다. 그런 이복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재경의 말에 용기를 냈고, 처음으로 꿈도 꾸게 됐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아우로 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

최근 동료배우 조윤희와 짝꿍 혼인신고를 한 이복은 연산군 이용을 연기한다. 이복은 연산군의 사극 연기는 데뷔 19년 만에 처음이다. 드라마는 연산군을 '모든 걸 자신의 발 밑에 두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만큼은 가질 수 없었던 슬픈 왕'으로 설정했다. 이용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다른 이복과 달리 겁 없이 다가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소녀 재경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15년 전 '여인천하'에서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를 연기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도지원이 이번에는 중종의 어머니인 자순대비를 맡았다. 자순대비는 자신이 배 이복 낳지 않은 아들 이용에게는 공포와 경계심을 자극하고, 친아들 이복에게 살해당해야 한다는 명분과 욕망을 표출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왕좌를 둘러싼 형제의 권력 대립에 기록적 역할을 하게 된다.

손은서가 연산군의 여인 장녹수를, 2PM의 찬성이 중종의 비가 되는 서노를 각각 연기한다. 이들 외에 장현성, 강신일, 박원상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임 스텝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파수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재)	00 다큐멘터리 3일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재)
1	00 4차 산업혁명 기획 IT쇼 멋진 신세계 50 제16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05 생생정보스페셜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똑?똑! 키즈스쿨 55 수빈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00 숨터 05 생로병사의 비밀	00 자동차부착식 위기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50 MBC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16강전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00 SBS 오수영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5 MBC 뉴스데스크	05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공감자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50 MBC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16강전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9	00 KBS 뉴스 9			
10	00 UHD 개국특집 2부작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의 타임캡슐>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컬렉션	10 앙코르 드라마 스페셜 <국시집 여자>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5 독립영화관 <할머니의 먼 집>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웃집 찰스 (재)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일생 최대 축제 인도 결혼식>	09:40 성난 물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열두 달의 한국과 새우부부 소보루>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타기독!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구 16:45 똥똥똥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깨우기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 메콩델타의 여인들> 21:30 한국기행 <속산속림에 살아가는 사람들> 21:50 EBS 디큐프리오 <대학 입시의 진실 - 교육 불평등 연대기> 22:45 글로벌이슈 찾아 삼리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여명의 눈물, 페이스 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대과수 용기리>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 운 (5월 5일丁巳)

子 4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60년생 점근성과 순발력의 문제가 될 것이다. 72년생 대단하지는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84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낳기 쉬운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40, 16	午 42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54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 66년생 능률을 따져 봐야 한다. 78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교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90년생 과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12
丑 49년생 절대로 대중 납득 문제가 아니니 확실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61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73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다. 85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66, 78	未 43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크겠다. 67년생 유력한 이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79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1년생 주중에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0, 58
寅 50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62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감만 하게 된다. 74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가 지킬 수 도 있어야겠다. 86년생 보고도 못 본체하고 들어도 못들은 체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81	申 44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56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정대로 처리하면 무난해라. 68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 52
卯 51년생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곧 바로 가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5년생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형국이다. 87년생 계획에 부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57	酉 45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적은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라. 57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9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 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81년생 불안정한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67, 09
辰 52년생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 64년생 신변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임하라. 76년생 확실하게 틀어고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88년생 역풍을 안고 있으니 부담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22, 66	戌 46년생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대단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수가 높아진다. 58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다. 70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 82년생 저절로 웃음이 배어나오는 흥양의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33, 72
巳 53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된 뒤에서 발전을 열 것이다. 65년생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77년생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니 걱정 말라. 89년생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38, 01	亥 47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59년생 미흡한 점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71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83년생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냉정하게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42,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